

# 축산물품질평가원 주니어보드를 소개합니다.

젊음의 권리와 의무, 주니어보드 6기 출범



주니어보드 6기 회장 유호선

## 열린경영 구현을 위한 입사 5년차 미만 직원으로 주니어보드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관의 경영진과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기관의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며, 조직문화의 변화관리를 위하여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기관운영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열린 경영을 구현하고자 입사 5년차 미만의 젊은 직원들로만 구성된 주니어보드(청년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영진에 직접 제안하여 큰 효과 기대

지난 2006년 제 1기 주니어보드의 발족을 시작으로 금년 3월 제 6기 주니어보드까지 이어오면서 기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진함으로써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경영진에 직접 제안하며, UCC 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소통방법을 도입하는 등 새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실험적인 도전으로 기관에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식품업계를 이끌어가는 외부기관 주니어계층과의 인터뷰 진행,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젊은 직원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여 축평원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사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주니어보드 활동을 통한 대내외 인적네트워크 넓힐 수 있어

올 해로 축평원은 스물 다섯의 건장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 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기관의 제도와 외형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두세 걸음 더 빠르게 급변하는 주위 여건과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응과 변화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기관에서 다양한 시도끝에 맺은 열매 중 하나가 우리 주니어보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지난 2년간 5기에서의 활동이 선배들의 손을 잡고 뿔 '준비운동'이라면 제 6기 주니어보드 활동은 역으로 후배들의 손을 잡고 뛰는 '마지막 본선무대'(입사 5년차 이상은 지원불가이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기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획경영본부에서 보내준 애정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소매단계



▲ 허영 원장님과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 최승덕 기획경영본부장과의 벽이 없는 소통 현장

최전선의 유통MD들과 축산식품 유통에 대한 공동워크숍을 개최시키고, 시니어계층과의 소통을 시도하며, 사내블로그단 활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면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후배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와 경험이 생겼고, 대내외 인적 네트워크도 차츰 더 쌓을 수 있었습니다.

12  
13

### 젊음의 의무인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물음표 던지기

우리 [젊음]에게 있어서 '비정상에서의 탈출' 또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의 일탈'이 [권리]라면 '남들보다 뜨거운 패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뛰는 열정', '1000번의 도전의지'는 [젊음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젊은 주니어보드 회원들이 출범 당일의 초심을 가슴깊이 간직하며, 어설픈 눈치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조직에 대하여 '강력한 물음표'를 힘차게 던지길 바랍니다. '궁금함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힘이 있다는 증거'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 이들은 거침없이 묻고, 묻고, 또 물어도 좋은 때이며 우당탕 넘어져도 부끄럽지 않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주니어보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고, 부딪혀 넘어져본 그 이후의 회사생활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7기, 8기...99기까지 이어가며 독특한 고유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축평원 주니어보드가 펼쳐갈 [네버엔딩 좌충우돌 성장드라마]와 그 밝은 파장을 저 스스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의 경영진과 동료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격려를 이끌어 내기위해 우리 소수정예 주니어보드는 앞으로도 꾸준히 정주행할 것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이 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너무도 반가운 봄을 만났습니다.

“자, 제 6기 축평원 주니어보드! 힘차게 뛰어보자 !!” 등공정원